

결승전은 수문장 대결... 믿는다 '빛광연'

폴키퍼 이광연 6경기 5실점 vs 우크라이나 루닌 5경기 3실점

양팀 총력전 선제 실점엔 분위기 급변 ... 포포프 결장 '희소식'

U-20 월드컵 16일 새벽 1시 결승전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U-20 월드컵 결승에서는 골키퍼 손에 우승컵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은 오는 16일 새벽 1시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와 U-20 월드컵 우승을 두고 최후의 한판을 벌인다.

이번 대전에서는 한국의 결승진출을 이끌어낸 골키퍼 이광연(강원FC)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는 조별리그부터 4강까지 눈부신 선방 쇼를 펼쳤다. 위기의 순간 빛나는 경기력을 펼쳐보인 이광연은 '빛광연'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세네갈과 8강 승부차기에서 선방으로 한국의 4강 진출에 앞장섰던 이광연은 12일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준결승에서 '거미손'의 명성을 입증했다.

이광연은 대표팀에서도 박지만(수원·189cm)과

최민수(함부르크·185cm)와 비교해 골키퍼 중 키가 가장 작다.

하지만 정정용 감독은 이광연에게 지난해 월드컵 터켓이 걸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과 이번 U-20 월드컵의 주전 장갑을 맡기며 신뢰를 보였다. 이광연은 정 감독의 신뢰에 보답하듯 한국의 결승 진출의 숨은 공신이 됐다.

이광연이 뒷문을 걸어잠그고 이강인, 오세훈, 엄원상, 조영욱, 황태현 등이 공수에서 활약한다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우크라이나도 한국을 상대로 첫 우승을 노린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8강의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조별리그 D조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 나이지리아, 카타르와 겨뤘 2승 1무를 기록,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월드컵에서 10득점·3실점을 기록했다. 경기당 실점은 0.5점에 불과했다.

잔물 수비의 주인공은 골키퍼 안드리 루닌(레가네스)이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루닌은 이번시즌 스페인 라리가 레가네스로 임대돼 뛰고 있고 있다. 190cm의 큰키로 차세대 골키퍼로 주목받고 있는 루닌은 지난해 800만파운드에 레알 마드리드 6년 계약을 체결했다.

루닌은 이광연과 달리 뛰어난 신체 조건을 앞세워 이탈리아와 4강전에서도 잇따라 선방하며 우크라이나의 결승행을 이끌었다.

이번 대회에서 활약한 루닌은 대회 도중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감독인 세브첸코의 부름을 받아 잠시 U-20 팀을 이탈한 뒤 국가대표팀 소집돼 8강전에 출전했다.

이광연은 조별 라운드부터 4강까지 전경기(6경기)출장해 5실점을 기록했다. 루닌은 다섯경기에 출전해 3골을 내줬으며, 루닌은 4강전까지의 활약을 토대로 골든볼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 다닐로 시칸과 세르히 불레차도 요주의 인물이다. 대표팀에 희소식도 있다. 골넣은 수비수 포포프가 이탈리아와 4강전에서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해 결승에 나서지 못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들아, 꿈의 무대에서 모든 것 쏟아부어다오”



2년전 가족여행 중인 황태현 가족. (아버지는 왼쪽 세번째)

태현아, 대한민국 축구사를 새롭게 쓴 태극전사로 뛰고 있어 자랑스롭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는다. 네가 그동안 노력한 만큼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원했던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주장 황태현(광양 출신) 부친 황수환씨의 응원 편지

지금 결승을 앞두고 있어 긴장과 흥분으로 설레이겠지. 하지만, 냉정과 집착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큰 경기를 바탕으로 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부상 없이 결승전을 마쳤으면 좋겠구나. 태현아, 세네갈과 8강전을 마친 후 네가 보내온 카톡메시지에 너무 가슴이 아팠단다. '한·일전, 세네갈전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경기 끝나고 구도할 정도였다'는 말이었지. 그리고 체력회복 속도가 더더 힘들다고 했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너의 열정이 듬직하면서도 부모로서 가슴 한켠이 무겁구나. 하지만, '세네갈전에서 하고 싶은대로 플레이했다. 이제 결과보다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즐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말이 무척 반가웠다. 그대 이제의 축구에 짓눌리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축구를 즐겨라. 언론에

서 U-20 대표팀이 자주 활용하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포함, 다양한 쓰리백과 포백 등 전술 변화에 네가 있다고 해서 무척 반갑고 자랑스러웠다.

태현아, 팀의 주장을 맡아 다른 선수들까지 챙겨야 하는 중압감이 상당하지. 하지만, 네가 광양제철고 시절부터 특유의 진화력으로 팀원들과 소통해 온 것을 안다. 이런 리더십이라면 네가 충분히 팀과 선수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나. 네가 결승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태현아, 3년전부터 이번 U-20 월드컵 대회를 염두에 두고 훈련해왔다는 것을 잘 안다.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꿈의 무대에 서게 됐으니 모든 것을 쏟아부어다오.

/정리=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장하다! 광주·전남의 아들들

엄원상·황태현·김정민 맹활약

광주·전남 출신 엄원상(광주FC), 황태현(안산 그리너스FC) 선수가 U-20 월드컵 결승 진출의 주역이 됐다. 이들이 이끄는 대표팀은 4강 신화를 넘어 대회 우승도 꿈꾸게 됐다.

이들 태극전사는 12일(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대회 준결승에서 맹활약, 결승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광주 경양초·광덕중·금호고를 졸업한 대표팀 '엄살라' 엄원상은 이날 후반 조커로 출전했다.

그는 장기인 스피드를 활용해 오른쪽 측면을 공격하며 공격진에 활기를 넣었다. 후반 40분에는 공격수 오세훈과 환상 콤비플레이를 펼치며 레알 마드리드의 '가레스 베일'을 연상시키는 환상의 골을 넣을뻔 했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썩기 골이 무산됐다. 엄원상의 플레이는 반격에 나선 에콰도르의 간담을 서늘하게했다.

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를 나온 황태현은 대표팀 주장으로 4강전까지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대표팀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체력을 앞세운 황태현은 활발한 오래버핑을 하며 공격을 시도했



엄원상

황태현

김정민

다. 또 수비시에는 에콰도르의 측면 공격을 차단했으며, 위기 상황시에는 영리한 플레이로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제2의 기성용'으로 불리는 광주 금호고 출신 김정민은 4강전에서 출전은 못했지만 8강전까지 중원에서 활약하며 대표팀의 결승행에 일조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한국축구, 세계무대 가능성 확인 기배

러분, 그리고 운동장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하나가 돼 뛴 것 같다. 감사드린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다음은 정 감독과의 일문일답.

-결승 진출 소감은.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민과 선수들이 하나가 된 것이 힘이 됐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축구 팬과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남은 한 경기, 결승전도 후회 없이 90분, 120분을 최선을 다해 뛸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결승 진출을 이뤘는데

▲제가 유소년축구를 지도한 것이 10년 넘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잡혀간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축구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축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세계무대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껴 기쁘다.

-승리 요인은

▲쉽지 않은 경기를 예상했지만, 다행히 평가전에서 이겨봐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준비했

던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어린 선수들인데도 축구 지능이 높아 보인다. 감독의 축구 철학과도 관련이 있다.

▲대표팀이 소집 기간이 길지 않다. 이해를 시키고 전술을 만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선수들에게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전술 노트를 나눠줬다. 포메이션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시켰다. 그 부분을 통해 조직적으로 도움이 됐다. 경기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훈련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동영상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보완하고 발전해나간다.

-앞선 경기들과 달리 전반부터 공격적이었는데.

▲선수들에게 '이왕 하는 거 정해진 포메이션을 끌어올려서 시작하자'고 했다. 상대는 분명히 압박보다는 내려서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볼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비 시에는 카운터타격을 노렸는데 선수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감을 갖고 공격해 득점까지 만들었다. /연합뉴스



“거미손이라 불러주오” 12일 오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에서 후반 한국 이광연 골키퍼가 문전으로 향하는 에콰도르의 공을 편칭으로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황의조 ‘킬러 본능’ 이란전 무득점 마감

평가전 1-1 무승부

‘벤투호의 황태자’ 황의조(27·감바 오사카)가 ‘난적’ 이란을 상대로 지긋지긋한 A매치(축구대표팀 간 경기) 5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에 기본 좋은 종지부를 찍었다.

벤투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A대표팀이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의 강호 이란과 평가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들어 공세를 강화했고, 손흥민(토트넘)과 투톱을 이뤄 이란의 문전을 위협하던 황의조가 마침내 ‘킬러 본능’을 발휘했다. /연합뉴스

황의조는 후반 12분 김민재(베이징 궈안)가 후반에서 상대 진영으로 길게 패스를 해주자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오른발 칩샷으로 이란의 골문을 꿰뚫었다.

이란전에서는 무려 8년 5개월, A매치 5경기 만에 터진 기본 좋은 득점포였다. 한국은 2011년 1월 22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에서 윤빛가람의 결승 골로 1-0으로 이긴 이후 8년 넘게 이란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A매치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했고, 4골을 내주는 동안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다. /연합뉴스